

第 3 次

ヒロシマ ナガサキ
히로시마·나가사키 原爆寫眞 展示會 및 おひき シンポジウム 심포지움

韓·日 被爆 2世의 連帶로 平和로운

あしたを つくろう
來日을 만들자.

再び - 다시는 核 被害者를 をつくらないために 만들지 말자 -

▶ 原爆寫眞 展示會 : 釜山驛 廣場(10:00~12:00)

▶ シンポジウム 심포지움 : アリラン 아리랑 觀光 ホテル 호텔(14:00~17:00)

☞ 日時 : 2003年 7月 26日(土) 10:00~17:00

☞ 場所 : 釜山驛 廣場 및 おひき 아리랑 觀光 ホテル 호텔

☞ 主催 : 韓·日 被暴 2世會

☞ 後援 : 韓國原爆被害者協會 및 おひき 釜山支部

第 3 次

ヒロシマ ナガサキ
히로시마·나가사키 原爆寫眞 展示會 및 および シンポジウム 심포지움

韓・日 被爆 2世의 連帶로 平和로운

あしたを つくろう
來日을 만들자.

- 다시는 核 被害者를 만들지 말자 -
再び をつくらないために

▶ 原爆寫眞 展示會 : 釜山驛 廣場(10:00~12:00)

▶ シンポジウム 심포지움 : 아리랑 아리랑 觀光 호텔 호텔(14:00~17:00)

☞ 日時 : 2003年 7月 26日(土) 10:00~17:00

☞ 場所 : 釜山驛 廣場 および 아리랑 아리랑 觀光 호텔 호텔

☞ 主催 : 韓・日 被暴 2世會

☞ 後援 : 韓國原爆被害者協會 および 釜山支部

式 順

■ 第 1 部 ■

司 會：姜 成 浩 (韓國被爆 2世會 大邱支部長)

▶ 開 會 宣 言

▶ 來賓紹介 및 主催側 人事

- 李 太 宰 (韓國被爆 2世會 釜山支部長)

▶ 會 長 人 事

- 李 承 德 (韓國被爆 2世會 會長)

- 平野伸人 (日本被爆 2世會 會長)

▶ 祝 辭

- 李 廣 善 (韓國原爆被害者協會 會長)

- 車 貞 術 (韓國原爆被害者協會 釜山支部長)

▶ 經 過 報 告

- 車 偵 烈 (韓國被爆 2世會 釜山支部 總務)

■ 第 2 部 ■

進 行：李 太 宰 (韓國) · 岸 本 伸 三 (日本)

▶ シンポジウム 심포지움

1) 町田涼子 (長崎縣 被爆2世會 常任委員)

: 在韓被爆者 支援活動 17年間의 발자취

2) 金亨律 (韓國被爆 2世會 釜山支部 會員),

3) 崎山昇 (長崎縣 被爆2世會 事務局長)

: 被爆2世의 現狀과 援護를 바라는 運動에 대하여

4) 角田拓 (廣島縣 被爆2世會 事務局長)

: 東北아시아의 非核化와 北韓에 對한 方案

5) 張世龍 (韓國被爆 2世會 慶南支部 會員),

6) 崎山昇 (長崎縣 被爆2世會 事務局長)

: 世界平和를 指向하는 被爆 2世의 助言

▶ 質 疑 應 答

▶ 總 評

- 李 鉉 出 (韓國被爆 2世會 顧問)

▶ 韓 · 日 被 爆 2 世 會 共 同 宣 言 文 發 表

주최측 대표 인사

한국피폭 2세회
부산지부장 이태재

한일피폭 2세회에서 주최하는 원폭관련 사진 전시회와 심포지움에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인사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오전에는 부산역 광장에서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투하되었던 사진을 전시하면서 '다시는 핵 피해자를 만들지 말자'라는 구호로 서명을 받기도 했습니다.

제3차 심포지움은 '한일 피폭 2세의 연대로 평화로운 내일을 만들자'라는 주제로 5명의 발표자가 6부분에 걸쳐 준비된 내용을 발표할 것입니다.

그 동안 한국의 피폭자들에게 물심양면으로 지원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신 일본피폭 2세회 여러분들에게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특히, 일본피폭 2세 단체 연합협의회 회장인 히라노 노부토(平野伸人) 선생에게 머리 숙여 감사 드립니다.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한반도에 전쟁을 막을 수 있는 법률적 장치가 없다는 내용과 올해 9월 9일 북한의 건국기념일에 북한은 핵 보유국을 선언할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사정거리가 1,300km로 일본열도까지 사정권에 두고 있는 미사일이 200발정도 보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최근 군비 증강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일본을 더욱 자극 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일본도 안보체제의 강화 움직임으로 자위대의 명칭을 자위군으로 바꾸고 유사법제의 제정과 이라크에 육상군 1,000명을 파견할 예정이며, 해외파병을 법제화 한다고 합니다.

피폭 1세분들을 통하여 알 수 있듯이 우리들은 전쟁과 핵이 없는 지구상에서 살 수 있도록 그 역할을 다 해야 할 것입니다.

한국의 피폭 1세분들이 살아 계시는 동안 조속한 원호법의 적용과 평화스러운 세상의 실현을 갈망하면서 인사에 대신합니다.

主催側 代表 人事

韓国被爆 2世会
釜山支部長 李太宰

韓・日被爆二世会で主催する原爆関連の写真展示会とシンポジウムにご参席いただきまして誠に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今日の午前、釜山駅の広場で広島と長崎で投下された写真を展示しながら "二度と核の被害者を作らないために" という口号で署名をいただきました。

第三次のシンポジウムは "韓・日被爆二世の連帯に平和な明日を作ろう" というの主題で五名の発表者が六部門に準備した内容を発表することになっています。この間、韓国の被爆者たちに物心両面で惜しまないご支援と協力下さった日本被爆二世会皆様にこの席を借りて感謝の言葉を申し上げます。

特に、日本の被爆二世団体連絡協議会会長の平野伸人先生に心から感謝致します。

最近、言論報道によると、「韓半島に戦争を防げる法律的な装置がない」という、内容と今年の九月九日、北朝鮮の建国記念日に北朝鮮は核保有国を宣言する可能性が大きいそうです。

それに、射程距離が1,300kmで日本列島まで射程権に置いてミサイルを200発ぐらい保有していることと、最近軍備増強に拍車を駆けている日本をもっと刺激することだと憂慮されています。

日本も安保体制の強化の動きで自衛隊の名称を自衛軍で変え、有事法制の制定とイラクに陸上軍1,000名を派遣する予定し、海外派兵を法制化するそうです。

被爆一世代を通じて分るように、私たちは戦争と核がない地球で暮すようにその役割を尽くしなければなりません。韓国の被爆一世代たちが生きていらっしゃるうちに、早い援護法の適用と平和な世界の実現を渴望しながら挨拶の言葉を申し上げます。

한국피폭 2세회
회장 이승덕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피폭 2세회 회장 이승덕 입니다. 한국 속담에 10년이 지나면 강산이 변한다는 말이 있는데, 우리 한·일 피폭 2세의 교류회는 1982년에 시작되었으니 벌써 강산이 2번이나 바뀌었고, 나이로는 엄연한 청년이 되는 20세가 되었습니다.

1982년 처음 시작할 때는 고등학교 3학년과 중학생들이 대부분이었는데, 벌써 20년이지나 40대를 넘어서 사회에서는 안정적인 기반을 닦아 가고 있는바, 지금이야 말로 한·일 피폭자 2세의 교류회가 심도있고, 활발하게 활성화 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2000년 7월에는 서울에서 일본 피폭 2세분들을 초청하여 심포지움을 개최하여 큰 호응을 얻었던 것을 발판으로 삼아 오늘, 한국의 제 2도시 부산에서 여러분을 모시고 한국 피폭 2세가 겪는 후유증과 어려움을 만반에 호소하고 더 나아가 문민정부에는 피폭 2세들의 정기적인 건강검진과 치료를 적극적으로 지원해 줄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피폭 1세분들의 고령화 및 사망으로 인해 사회활동이 불가능하고 조직이 노쇠 되어감에 따라, 이제야 말로 우리 피폭 2세분들이 조직을 활성화하고,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하는 시기입니다만, 어떠한 확실한 모토 없이 모임을 갖는 것은 상당한 애로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의 심포지움을 계기로 피폭 1세분들에게 해당되는 원호지원 사항 중 건강검진이라도 우리 피폭 2세들에게 지원할 수 있도록 일본 정부와 한국 정부에 재촉하는 바입니다.

피폭 2세인 김형울씨도 원인을 알 수 없는 후유증으로 고생하고 있으며, 일상생활도 불가능 할 정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제는 우리 한·일 피폭 2세회가 힘을 합치고 적극적으로 활동하여 음지에서 고생하고 있는 사람을 위해 열심히 활동할 것을 확신합니다.

마지막으로 바쁘신 중에도 참석하시어 이 자리를 빛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韓国被爆 2世会
会長 李 承 徳

こんにちは。私は韓国被爆者2世会会長李承徳と申します。

韓国のことわざに、10年が経つと江山が変わるという言葉がありますが、私たち韓国被爆2世の交流会は、1982年に始まってもう江山が2回も変わり、年としては厳然の成人の年になりました。

1982年に始まった時には、ほとんどが高校3年生と中学生でありましたが、もう20年も立った現在40代を過ぎ安定的な位置になっている今こそ韓日被爆者2世の交流会が深みのある活発に活性化になる時期になったと思われまます。

2000年7月には、ソウルで日本被爆2世たちを招請し、シンポジウムを開催して多くの呼応を得られたことをはじめ、今日は韓国の第2都市である釜山で皆様を仕え、韓国の被爆者2世の後遺症や苦しみを訴え、大きい意味としては文民政府には被爆2世たちの定期的な健康検診や治療を積極的に支援することを促求するのです。

被爆1世たちの高齢化及び死亡によって社会活動が不可能であり、組織が老衰になっていくことによって、今こそ私たち被爆者2世たちが組織を活性化して積極的に活用すべきの時期であります。が、どのような明確の元のない会を行うことには非常に隘路点があります。

従って、今日のシンポジウムをきっかけに被爆1世たちに該当される援護支援の事項の中で、健康検診だけでも私たち被爆2世たちに支援できるように日本政府と韓国政府に訴えるのです。

被爆2世である金形律さんも原因の知らない後遺症で苦しんで、日常生活も不可能程大変苦勞していることに、これから私たち韓国被爆2世会が力を会わせて積極的に活動して陰地で苦しんで人たちのために熱心に活動することを確信します。

以上、お忙しいところ参席していただきましてまことに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日本被爆 2世會
會長 平野伸人

日韓の被爆二世の交流の歴史は、1980年代に日本の被爆二世が韓国を訪問した時から始まりました。そして日本の過去の侵略の歴史の反省、戦後補償の実現、韓国人被爆者の救援などの活動を通じて信頼関係を築いて来ました。

日韓の被爆二世がお互いを信頼し、共同の活動を行うための努力が今回3回目を迎える

「日韓被爆二世シンポジウム」です。

日韓の真の友好を築き、被爆二世が北東アジアの安定や世界の平和の実現に役立てるような方向性をもったシンポジウムでありたいと願っています。道程は遠くて厳しいものがありますが、過去の歴史を教訓として「再び被爆者を作らない」ための努力を共にしていきたいものです。

未来を平和なものとするために語り合うためにこのシンポジウムが企画された意義を確かめ、日本の被爆二世を代表として連帯のごあいさつとします。

일본피폭 2세회
회장 히라노 노부토

한·일 피폭 2세 교류의 역사는 1980년대에 일본의 피폭 2세가 한국을 방문했을 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일본의 과거 침략 역사의 반성, 전후보상의 실현, 한국인 피폭자의 구원 등의 활동을 통해서 신뢰관계를 쌓아왔습니다.

한·일 피폭 2세가 서로 신뢰하고 함께 활동을 하기 위한 노력이 이번으로 세 번째를 맞이하는 「한·일 피폭 2세 심포지움」입니다. 한국과 일본의 진정한 우호를 쌓고 피폭 2세가 동북아시아의 안정과 세계 평화의 실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심포지움이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은(道程) 멀고 험난하지만 문제들이 있지만, 과거 역사를 교훈으로 해서 「다시는 피폭자를 만들지 말자」라는 구호아래 함께 노력해 나가고 싶습니다. 평화로운 미래를 위해 서로 대화하기 위하여 이 심포지움이 기획된 의의를 확인하고, 일본의 피폭 2세를 대표하여 연대의 인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경과보고

한국피폭 2세회
부산지부 총무 차정렬

1982년 일본피폭 2세의 한국 방문으로 한일피폭 2세의 교류가 시작되었습니다.
1989년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서 제1회 한일피폭 2세 심포지움이 개최되었고,
2000년 7월 29일 서울에서 제2회 한일피폭 2세 심포지움이 개최되었습니다.
오늘 2003년 7월 26일 부산에서 제3회 한일피폭 2세 심포지움이 개최됩니다.
그 동안 많은 교류회가 한국과 일본에서 있었고, 앞으로도 더욱 노력하여
전쟁과 핵무기가 없는 평화로운 세계의 실현을 위해 노력합니다.

経過報告

韓国被爆 2世会
釜山支部 総務 車貞烈

1982年、日本被爆二世の韓国訪問で、韓・日被爆二世の交流が始まりました。
1989年、広島と長崎で「第1会韓・日被爆二世のシンポジウム」が行われました。
2000年7月29日、ソウルで「第2会韓・日被爆二世シンポジウム」が開催されました。
今日、2003年7月26日、釜山^{フアン}で「第3会韓・日被爆二世シンポジウム」が開催されます。
今まで多くの交流が韓国と日本であり、今後も最善を尽して戦争と核兵器のない平和な世界
の実現のため努力しましょう。

長崎県 被爆 2世会
 常任委員 町田涼子

私が在韓被爆者と出会ったのは、1987年、日本被爆2世訪韓団でのソウルでした。当時の原爆被爆者協会を訪ねて、韓国被爆者の実態を聞き、被爆者の家庭を訪問しました。その被爆者は、10年以上寝たきりの方で、家族はその看病のために仕事もできず、大変苦しい生活をしているということでした。苦しい生活を強いられ、何の補償も受けられない人たちの実状を始めて知りました。

被爆者、被爆2世との交流会のとき、まだ高校性や大学生の被爆2世が、口々に、「日本の36年間の植民地政策を許さない。」「私たちの親たちは、日本のためにひどい目にあった上、被爆し、今苦しい生活をしている」「日本人とこうして同席したくなかった。」というようなことを言っていました。それまで私は、日本の加害について、何も知らずしていなかったことを痛感しました。

この訪韓が、在韓被爆者とかかわるきっかけになり、支援活動をこれまで続けてきた原動力になっています。訪韓後、私たちは、日本の加害の歴史や、韓国の被爆者について学習するための旅をしました。そして、日本の人たちに、韓国の被爆者について知ってもらうための講演会や、写真展を開きました。しかし、そのころ、日本での関心は大変浅く、参加者は、わずかでした。

1987年以降、私たちは、年に数回韓国を訪問し、被爆者や被爆2世と交流し、被爆者の家庭を訪問してきました。生活の苦しい被爆者のために、募金を集めて届けました。被爆2世とは、交流をするうちに理解し合えるようになり、友情も深まっていきました。1989年には、韓国の被爆2世を日本に招いてシンポジウムを開き、日本の人たちに直接被爆2世の思いを聞いてもらうことができました。

韓国の被爆者の実態を知り、日本の被爆者と同様の補償が受けられるよう国に求める運動が必要であることを感じてきました。しかし、その補償の実現を待つ間にも、被爆者の健康状態は悪くなっており、すぐにも援助が必要でした。一度訪ねた被爆者を数年後、再度訪問したときには、病状が更に悪化したり、亡くなった方がいらっやるのを知り、とても残念な思いをすることもありました。そこで、どのような援助が私たちにできるのかと考えて、特に2つのことを中心に支援活動をしてきました。それは、生活に困っている被爆者に支援金を届けること、また、韓国では十分な治療が受けられない被爆者を日本に呼んで、治療してもらうということです。

渡日治療が軌道に乗るまでには、いろいろな問題がありました。しかし、私たちの活動を理解してもらえ病院に継続的に受け入れてもらうようになり、現在も続けています。

▶ 金順吉裁判, 李康寧裁判 最近の渡日治療について ◀

長年韓国の被爆者の支援活動を続け、私たちの活動を集会やマスコミなどを通じて日本の人たちに知ってもらうことによって、回りの状況も大きく変わってきました。活動を始めたころは、韓国の被爆者について知る人は少なく、加害の歴史についても関心をもつ人が少なかったのですが、今では、関心が高まり、支援者も増えました。

私たちはこの間、韓国各地を回り、調査や支援をしてきました。その度い、被爆者の方に同行してもらい、案内してもらったり、通訳してもらったりしています。しかし、被爆者の方が高齢化し、以前のように同行してもらうのも難しくなっているのを感じています。被爆者自身が被爆者のお世話をするというのも、これから更に厳しくなっていくでしょう。高齢化していく被爆者に被爆者運動を任せておくのではなく、私たちの世代が、受け継いでいかなければなりません。親の被爆体験と、被爆による辛さを知っている私たち被爆2世が、その中心を担う責務があるでしょうか

나가사키현 피폭2세
 상임위원 마치다 료우코

제가 在韓被爆者と 인연을 맺게 된 것은 1987년 일본 피폭 2세 방한 단체에서의 서울 방문이었습니다. 당시의 원폭피해자협회를 방문해서, 한국의 피폭자 실태를 듣고, 피폭자의 가정을 방문했습니다. 그 피해자는 10년 이상 몸 저 누운 상태였던 분으로, 가족은 그 분의 간병을 위해서 일도 할 수 없었고, 매우 힘든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힘든 생활을 하면서 어떠한 보상도 받을 수 없는 사람들의 실상을 처음으로 알았습니다.

피폭자, 피폭 2세와의 교류회 때 아직 고등학생 또는 대학생인 피폭 2세가 「일본의 36년 간의 식민지정책을 용서할 수 없다」, 「우리들의 부모님은 일본에 의해 고통을 당한데다 피폭까지 당하여, 지금까지도 힘든 생활을 하고 있다」, 「일본인과 이렇게 동석(同席)하고 싶지 않다」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때까지 저는 일본의 침략에 대해서 아무것도 알려고 하지 않았던 일에 통감을 했습니다.

이 방한이 在韓 피폭자와 인연을 맺게된 계기가 되어, 지원활동을 지금까지 계속하게 한 원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한국을 방문한 후 저희들은 일본의 가해 역사와 한국의 피폭자에 대해서 학습하기 위해 여행을 했습니다. 그러나 일본에서의 관심은 매우 적어 참가자는 얼마되지 않았습니다.

1987년 이후 저희들은 일년에 몇 번씩 한국을 방문하고, 피폭자와 피폭 2세와 교류를 하고, 피폭자의 가정을 방문하고 있습니다. 생활이 힘든 피폭자들을 위해 모금을 해서 돕기도 하였습니다. 피폭 2세와는 교류를 하는 동안에 서로 이해할 수 있게 되었고, 우정도 깊어졌습니다. 1989년에는 한국의 피폭 2세를 일본에 초대해서 심포지움을 하고 한국의 피폭 2세들로부터의 생각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한국의 피폭자 실태를 알고, 일본의 피폭자와 같이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나라에 요구하는 운동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보상의 실현을 기다리는 동안에도 피폭자의 건강상태는 나빠졌었고, 당장에라도 원조가 필요했습니다. 한번 방문한 피폭자를 수년 후 다시 방문했을 때에는 병상이 더욱 악화되기도 했고, 돌아가신 분들도 계신 것을 알고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했습니다. 거기서 어떠한 원조가 우리들에게 가능한가를 생각해 특히 두 가지 문제를 중심으로 지원활동을 해왔습니다. 「그것은 생활이 힘든 피폭자에게 지원금을 보내는 것과 한국에서 충분한 치료를 받을 수 없는 피폭자를 일본으로 불러서 치료를 받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될 때까지는 여러 가지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의 행동을 이해해 줄 수 있는 병원에 계속적으로 보낼 수 있게 되었고, 현재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김순길 재판·이강녕 재판, 최근의 도일 치료에 대하여 ◀

수년간 한국의 피폭자 지원활동을 계속하고 우리들의 집회 활동과 홍보 등을 통해서 일본인들이 알게 되는 것에 따라 주변의 상황도 크게 변했습니다. 활동을 시작했을 당시는 한국의 피폭자에 대해 아는 사람은 적고, 가해의 역사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는 사람이 적었지만, 지금은 관심이 높아져 지원자도 늘었습니다.

우리들은 최근 한국 각지를 돌아 조사와 지원을 하고 왔습니다. 피폭자 분들이 동행해 주시고 안내 및 통역을 하시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피폭자 분이 고령화되고 예전과 같이 동행하시는 것도 어렵게 되어 간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피폭자 자신이 피폭자를 돌보는 일도 이제부터는 더욱 힘들게 될 것입니다.

고령화되어 가는 피폭자에게 피폭자 운동을 맡길 것이 아니라 우리들 세대가 이어받아서 해야 할 것입니다. 부모의 피폭 체험과 피폭에 의한 아픔을 알고 있는 우리들 피폭 2세가 그 중심을 담당하는 임무를 해야 할 것입니다.

한국피폭 2세회
부산지부 회원 김형을

“인간답게 살고 싶다”라는, 보통사람에게는 단순한 소망이 한국피폭 2세들에게는 너무 힘든 것이 되었습니다. 인간답게 살고 싶은 작은 소망조차도 이루기 힘든, “피폭 2세”라는 상황과 한 개인의 꿈마저 한 인간의 의지마저도 세상은 담보해내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이것은 한 피폭 2세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도 감내하기 어려운 내·외적인 고통 속에서 자신과 치열한 싸움을 하고 있을 2,300여명의 한국피폭 2세들의 삶의 모습일 것입니다. 한국피폭 2세의 입장에서 “인권회복”을 실현시키는 방법으로 두 가지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 한국피폭 2세들의 생명권과 생존권, 건강권이 위협받고 있는 현실을 인식하고 이에 대해 한국시민사회단체와 함께 한국정부를 상대로 최소한의 생존권을 보장받을 수 있는 법적인 보호를 해줄 것을 요구하는 다양한 활동들이 필요할 것입니다. 우선 법체계 마련을 위해서 변호사들의 전문적인 자문역할과 함께 국회의원을 상대로 입법화 운동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 모든 과정들을 한국시민사회와 함께 공유하고 활동해나간다면 한국피폭 2세들뿐만 아니라 지난 58년 동안 한국정부로부터 버림을 받아오신 한국원폭피해자들에 대한 법적인 보호까지도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 한국피폭 2세들의 “인권회복”에는 한국피폭 2세들을 존재하게 만든 일본정부와 미국정부에 대한 법적인 배상과 보상을 받아내야 할 것입니다. 한국피폭 2세들은 일본제국주의가 일으킨 잔혹한 침략전쟁의 피해자들입니다. 저를 비롯한 모든 피폭 2세들은 전쟁이 끝난 후 태어난 해방 후 세대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피폭 2세가 되었습니다.

21세기는 인권(人權)의 시대입니다. 인권은 어떤 상황에서도 유보할 수 없는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최소한의 권리이며 삶의 가치이기 때문에 정치 개혁을 하든 경제 개혁을 하든, 사회 개혁을 하든 인권의 가치가 손상되지 않고 향상될 수 있도록 배려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회 곳곳에서 소수자들의 인권회복 운동은 시대의 변화와 함께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적 흐름에 따라 올바른 역사인식과 사회인식의 토대 위에서 한국피폭 2세들의 인권회복 운동이 놓여 있습니다.

이에 한국피폭 2세들은 인권회복을 실현하는 차원에서 일본정부와 일본사회의 허구적인 평화주의를 극복해 낼 수 있는 대안마련과 함께 올바른 역사성과 사회성을 바탕으로 진정한 평화를 한국시민사회구성원과 일본시민사회구성원들과 함께 공동 연대하여 다음 세대들에게 진정한 평화를 물려주고자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21세기의 시작은 전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한반도에 새로운 전쟁의 기운이 감돌고 있습니다. 2002년 10월, 북한 핵 보유 발언으로 시작된 한반도 핵 위기는 북한과 미국의 한치양보도 없는 상황에서 또다시 한반도 전쟁위기설들이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국피폭 2세들은 어떤 명분으로도 북한의 핵무기 보유와 사용을 용납할 수 없습니다. 또한 2002년 1월 미 정부의 ‘핵 태세보고서’ (NPR)에서 북한에 대한 핵 선제공격 가능성을 명시하고, 같은 해 9월 미 의회에 제출한 ‘국가안보보고서’ 에서 이 방침을 재확인하여 언제든 북한에 대한 선제 핵 공격을 감행할 준비를 하고 있는 미국정부의 한반도전쟁위기 조성에 대한 어떠한 행동도 반대하며 지금의 한반도 핵 위기 상황을 누구보다도 근심 어린 시선으로 지켜보고 있습니다.

한반도에 진정한 평화를 위해서는 한국원폭피해자와 피폭 2세들의 구체적인 삶을 담보해내는, 핵무기 피해의 상흔(傷痕)을 안고 살아가는 많은 한국원폭피해자와 피폭 2세들의 살아있는 증언과 삶을 통해 무서운 핵무기의 실상을 한·일 시민사회에 널리 알려야 하고 널리 공유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21세기가 지향해야 하는 인간존엄성이 바탕이 되는, 인권을 중시하는 진정한 평화의 모습이 될 것입니다. 한국원폭피해자와 피폭 2세들의 처절한 삶의 모습을 통하여 전쟁의 기억들을 복원하고 체계화하여 다시는 한반도와 동북아에 핵 위협이 상존하지 못 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인권을 위한 평화, 인권에 의한 평화가 한반도와 전 세계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우리 모두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韓国被爆 二世会
釜山支部 会員 金亨律

“人間らしく生きたい”という普通の人の単純な望みが韓国被爆二世たちにはとても大変なものになっています。“人間らしく生きたい”との小さな望みさえもできない“被爆二世”という状況と個人の夢、個人の意志さえも世界は認められないのが惜しいものです。これが一人の被爆二世の問題ではなく、今も辛抱できない内・外の苦勞の中で自分との激しく戦っている約2,300名の韓国被爆二世たちの暮らしです。

韓国原爆二世の立場から「人権回復」を実現させる方法として二つの方法があると考えられます。第一、韓国原爆二世たちの生命権と生存権、健康権が脅かされている現実を認識し、これに対し、韓国の市民社会の構成員と共に韓国政府を相手に法的な保護をするよう要求する多様な活動が必要だとおもいます。

まず、法律の体系の備えるために弁護士たちの専門的な諮問役割と共に国会委員を対して立法化の運動が必要だと思います。このような過程を韓国市民社会と共に共有して活動して行けば韓国被爆二世たちだけでなく、過去58年の韓国政府に捨てられた韓国被爆被害者たちについて法的な保護までもできるとおもいます。

第二、韓国被爆二世たちの「人権回復」のため、韓国の原爆二世を存在させるにいたした日本政府と米政府に対する法的な賠償と補償を受けねばならぬだろう。韓政府原爆二世は、日本帝国主義が引き起こした残酷な侵略戦争の被害者です。私を初めとする全ての韓国原爆二世たちは、戦争が終わって生まれた解放後世代です。そして、我々は、自分たちの意志と関係なく、原爆二世となりました。

我々の体は21世紀を生きているが、我々を規定している被爆二世と、そのためにもっている後遺症で、以前の元気はなくなって、益々と痩せて行く姿と状況の中では日本帝国主義がなした侵略戦争と不法な植民地蛮行という狂気の歴史が、現在のこの時間までも延長して我々の体を支配しているのだ。

また、大量殺傷兵器である原子爆弾を投下し、甚だしい人命殺傷をもたらした米政府は、人生を原爆後遺症という苦痛の中で生きている多くの原爆被爆者たちと原爆二世たちに対し、何らの責任もとらず、徹底して無視し続けてきた。このように日本政府と米政府に被爆被害に対する法的な責任を明らかにするものと共に補償を貰わなければなりません。

21世紀は人権の時代です。人間はどんな状況でも留保できない人間らしく生ける最小限の権利で生き甲斐なので政治改革、経済改革、社会改革と関係なく人権の価値が損傷できなく向上できるように配慮されなければなりません。社会各所の少数者たちの人権回復運動は、時代の変化と共に多様な姿を見せています。このような時代的流れに伴って、正しい歴史認識と社会認識の土台の上に、韓国原爆二世たちの人権回復運動が置かれている。

これに対し、韓国原爆二世たちは、人権回復を実現する次元から日本政府と日本社会の虚構的な平和主義を克服していける対案の準備とともにいわゆる歴史性と社会性に基づく真の平和を韓国の市民社会構成員と日本の市民社会構成員とともに連帯し、次の世代たちへ真の平和を引き渡すべく努力しなければならないだろう。

21世紀は、戦争によって始まりました。そして、朝鮮半島に新たな戦争の機運が漂っています。2002年10月の北朝鮮の核保有発言に始まった朝鮮半島の核危機以後、北朝鮮と米国は譲歩もない状況であり、再び朝鮮半島に戦争危機説が用心深く唱えられています。

韓国原爆二世たちは、いかなる名分であっても、北朝鮮の核兵器の保有と使用を認めることができない。また、アメリカ政府は、2002年1月の「核態勢報告書」(NPR)で北朝鮮に対する核の先制攻撃の可能性を明示し、同年9月議会で提出した「国家安保報告書」でこの方針を再確認し、北朝鮮に対する核の先制攻撃を強行する準備をしています。

我々は、このような米政府の朝鮮半島戦争危機の造成に対するいかなる行動にも反対し、現在の朝鮮半島核危機の状況を誰よりも心配して見守っています。

朝鮮半島の真の平和のためには、核兵器被害の傷跡を負って生きてきた韓国原爆被爆者と韓国原爆二世たちの証言と生きざまを通して、核兵器の恐ろしい実相を韓国の市民社会に広く知らせ広く共有しなければならないと思います。これが、21世紀が指向すべき人間の尊厳性に基礎をおき、人権を重視する真の平和を導くことになるとおもいます。韓国原爆被爆者と韓国原爆二世たちの凄絶な生きざまを通し、戦争の記憶を復元し体系化して、再び朝鮮半島と東北アジアに核の脅威が存在しないようにしなければなりません。また、人権のための平和、人権による平和が朝鮮半島や全世界に根を降ろすことができるように我々皆が努力しなければなりません。

被爆二世・三世問題は世界の問題解決
のために国民的課題とした運動に

長崎県 被爆二世会
事務局長 崎山昇

みなさん、こんにちは。

私からは、日本における被爆二世・三世に対する対策の現状と課題について簡単に報告させていただきます。

日本には、30万とも50万ともいわれる被爆二世がいるといわれています。しかし、その数さえもはっきりしていません。日本政府が行っているのは、年に1回の被爆二世に対する健康診断だけです。1979年以来、日本政府は被爆二世の健康不安を解消するという理由で行ってきました。しかし、この健康診断は、法律で定められものではありません。いつでも止めることができます。ガン健診を受けることができない健康診断は、真に被爆二世の健康不安を解消するものとはなれていません。また、被爆三世に対しては、健康診断さえ行われていません。

日本では、1995年、被爆50年目にして、不十分ですが「被爆者援護法」という法律ができました。しかし、その中には被爆二世・三世に対する対策は盛り込まれませんでした。

「被爆者とその子及び孫にたいする影響についての調査、研究及びその対策について十分配慮し、二世の健康診断については、継続して行うとともに、その置かれている立場を理解して一層の充実を図ること」という決議がなされるに止まりました。付帯決議です。

日本の被爆二世は、1973年以降、被爆二世の組織化を進め、1982年に日本政府に対して初めて統一した要求書を提出しました。1988年には日本被爆二世の会を発足させ、この会を窓口日本政府との交渉を行ってきました。

私たちの基本的な要求は、被爆二世・三世に対して「被爆者援護法」を適用することです。まず第一段階として、二世健診を被爆二世対策として行うという法律をつくること、ガン健診を追加するなど内容の充実を図ること、被爆三世も受診できるようにすることです。第二段階として、被爆者と同じように、原爆に起因する病気にかかった場合は、医療の措置や手当の支給がされるようにすることです。

日本政府は、「現時点では原爆放射線の遺伝的影響は認められない」という理由で、被爆二世・三世に対して「被爆者援護法」を適用したり、新たな対策はできないといっています。しかし、日本政府は、付帯決議は国会の意思であり、二世問題を進めていく基本であるとの考えを示しています。二世健診を継続して実施すること、可能なところから改善していくことは約束しています。

現在、日本では被爆二世健康影響調査が行われています。2001年5月からスタートしました。この調査は、癌などの生活習慣病に対する原爆放射線の遺伝的影響を調査することが目的です。私たちは、この調査が日本政府の被爆二世対策につながるようにと日本政府と交渉を重ねました。

その結果、日本政府は、この調査について、経過を慎重に見守り、結果にも重大な関心を寄せていることを表明しました。この調査の結果やその結果に基づき、日本政府がどんな二世対策を講じるか、日本の被爆二世だけではなく、韓国の被爆二世は勿論、世界中の核の被害者の二世たちに、影響を及ぼす重要な問題です。

被爆二世・三世が抱える問題は、日本でもほとんど知られていないのが現状です。私たち日本の被爆二世は、被爆二世・三世問題の解決のために国民的理解を深めながら、国民的課題とした運動にしていく必要があると考えています。

피폭2세・3세 문제는 세계의 문제 해결을
위해 국민적 과제로 한 운동으로...

나가사키 피폭 2세회
사무국장 사키야마 노보루

여러분, 안녕하세요. 제가 일본에 있는 피폭 2, 3세에 대한 대책 현상과 과제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고하겠습니다. 일본에는 30만 명, 50만 명이나 되는 피폭 2세가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수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일본정부가 피폭 2세에 대한 대책을 실행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단 한 가지 일본정부가 행하고 있는 것은 1년에 한번 피폭 2세에 대한 건강진단뿐입니다. 1979년 이후, 일본정부는 피폭2세의 건강불안을 해소한다라는 이유로 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건강진단은 법률로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언제라도 중단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암 검진도 없습니다. 피폭 2세도 고령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암 검진을 받을 수 없는 건강 진단은 사실 피폭 2세의 건강불안을 해소하는 것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또, 피폭 3세에 대해서는 건강 진단조차 실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일본에서는 1995년 피폭 50년을 맞이해서 불충분하지만 「피폭자 원호법」이라는 법률이 생겼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는 피폭2세 3세에 대한 대책은 포함하고 있지 않았습니. 「피폭자와 그의 자제 및 손자에 대한 영향에 대해서 조사, 연구 및 그 대책에 대해서 충분히 배려하고 2세의 건강진단을 계속해서 실행할 것과 처해있는 입장을 이해해서 한층 더 충실을 도모한다」라는 결의가 있었지만 중단되었습니다. 부대결의(付帶決議)입니다. 일본의 피폭2세는 1973년 이후, 피폭2세의 조직화를 추진해서 1982년에 일본정부에게 처음으로 통일한 요구서를 제출했습니다. 1988년에는 일본피폭 2세회를 발족시켜 이 모임을 창구로 일본정부와 교섭을 해왔습니다. 우리들의 기본적인 요구는 피폭 2세, 3세에 대해서 「피폭자 원호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우선 제 1단계로서 2세 건강진단을 피폭2세 대책으로서 하는 법률을 만들 것, 암 건강진단을 추가하는 등 내용에 충실할 것, 피폭3세도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제2단계로서 피폭자와 같이 「원폭에 기인하는 병원」인 경우는 의료조치와 수당의 지급이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일본정부는 「현시점에서는 원폭방사선 유전적 영향은 인정할 수 없다」라는 이유로 피폭2세, 3세에 대해서 「피폭자 원호법」을 적용하기도 하고, 새로운 대책은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본정부는 부대결의(付帶決議)는 국회의 의사이고, 2세 문제를 추진할 기본생각을 지시하고 있습니다. 2세 건강진단을 계속해서 실시할 것, 가능한 부분부터 개선할 것을 약속했었습니다.

현재, 일본에서는 피폭 2세 건강 영향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2001년 5월부터 시작했습니다. 이 조사는 암 등, 생활 습관 병에 대한 원폭방사선의 유전적 영향을 조사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우리들은 이 조사가 일본정부의 피폭 2세 대책으로 이어지도록 일본정부와 교섭을 계속 했습니다. 그 결과, 일본정부는 이 조사에 대해서 경과를 신중히 지켜보고 결과에도 중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표명했습니다. 이 조사결과를 기본으로 해서 일본정부가 어떠한 2세 대책을 강구할 것인가, 일본피폭 2세뿐만 아니라 한국피폭 2세는 물론, 세계에 있는 핵 피해자인 2세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피폭 2세, 3세가 안고 있는 문제는 일본에서도 대부분 알려지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 일본피폭 2세는 피폭 2세, 3세 문제의 해결을 위해 국민적 이해를 깊이하고, 국민적 과제로 한 운동을 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広島県被爆二世団体連絡協議会
事務局長 角田 拓

まず、はじめに私たちは、すべての国の核兵器の開発ならびに保有に反対です。北東アジアでは現在、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国(以下共和国)の核開発問題がとりざたされている。この地域では、ロシア、中国などすでに核兵器を所有している国があり、また、日本・韓国には、核兵器を保有しているアメリカが軍隊を駐留させている。ここにさらに共和国の核兵器が加わるによりこの地域での軍事的な緊張が非常に高まることになる。日本政府は「被爆国日本」と「非核三原則」をいいながら、事実上はアメリカの核の傘下に入り、アメリカの核の力を利用しているのが現状である。

私たちは、こうした現状での緊張の高まりが政治的に利用されることにより、日本の軍備が強化され、さらには日本の核武装が取りざたされていくことを問題視している。

私たちは、被爆体験を継承するものとして、また、自信の被爆者の子としての立場からとうてい核兵器を容認することはできないし、核兵器の禁止を訴えていくものである。

そのために私たちに何ができるか。それに一番重要なことはまず親の被爆体験をしっかりと継承していくことではないだろうか。私たち被爆二世は被爆の問題を自分自身の問題とらえることができる。そしてそれを多くの人々に語りかけていくことができる。例えば私たちは広島へ訪ねる修学旅行生たその他の人々に親の被爆体験と自分の思うことを伝えている。また、私は高校の教員であるので教育の場で生徒たちにそれを話すこともある。また、こうした活動はわずかものでしかないのではあるが、私はこうした活動を行うことにより、自分の立場をより明確に意識するようになり、日本はもとより、ここ韓国、あるいは中国などの北東アジアの平和を要求する多くの人々と真に連帯できるようになった。今後ともこうした活動を続けていくことが、何より大切なことだと確信している。

히로시마현 피폭2세대단체연락협의회
사무국장 카쿠다 타쿠

우선, 우리는 모든 나라의 핵무기 개발 및 보유에 대해서 반대입니다.

동북아시아에서는 현재 북한의 핵 개발 문제가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 지역에서는 러시아, 중국 등 이미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는 나라가 있고 일본 한국에는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는 미국이 군대를 주둔시키고 있습니다. 여기에 북한의 핵무기가 더해지면 이 지역의 군사적인 긴장이 아주 높아지고 있습니다. 일본정부는 「피폭국 일본」과 「비핵삼원칙」을 말하면서, 사실은 미국의 핵 아래에서 미국 핵의 힘을 이용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들은 이러한 현상에서 긴장감이 정치적으로 이용되고 있는 것으로 일본의 군비가 강화되고, 거기에 일본의 핵무장이 거론되는 것을 문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피폭체험을 계승하는 것으로서 또는 자신이 피폭자의 자녀 입장에서 도저히 핵무기를 용인할 수 없고, 핵무기의 금지를 소송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들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우선 부모님의 피폭체험을 확실히 계승해 가는 것이 아닐까요. 우리 피폭2세는 피폭의 문제를 자기 자신의 문제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릴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들은 히로시마에 방문하는 수학여행학생들과 그 외의 사람들에게 부모님의 피폭체험과 자신의 생각을 전하고 있습니다. 또 저는 고등학교 교원이기 때문에 교육현장에서 학생들에게 그것을 말한 적도 있고 시민운동의 일원으로서 작은 활동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활동은 아주 작은 일에 불과하지만 저는 이러한 활동을 하는 것으로 자신의 입장을 보다 명확하게 의식할 수 있게 되었고, 일본은 한국 또는 중국 등에 동북아시아의 평화를 갈망하는 많은 사람들과 실로 연대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활동을 계속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일이라고 확신합니다.

한국피폭 2세회
경남지부 회원 장세용

2003년 3월 20일 세계 반전 시위와 프랑스, 독일, 러시아, 중국, 중동국가 등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미국·영국 연합군은 이라크에 대한 공격을 개시하였다.

이와 동시에 세계 곳곳에서 즉각적인 반전 집회가 열렸으며, 미국에 대한 규탄과 무고한 이라크 민중에 대한 공격 및 비인도적인 폭탄에 성토가 대단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국회는 국민의 뜻과 달리 이라크전에 파병 동의 안을 가결 처리하여 평화의 길을 버리고 전쟁의 길을 선택하게 되었다.

세계는 전쟁 국가 군(群)과 평화 국가 군으로 나뉘게 되었는데, 한국 정부는 이라크 파병을 단행함으로써 국민의 평화 의지와 무관하게 전쟁 국가 군에 들어가게 되었다.

이라크 전쟁은 유엔의 승인 절차를 무시한 명백한 침략행위이다.

부시 정권은 인류의 양심이 모인 법정에서 심판을 받아야 한다. 더불어 한국과 일본 역시 이라크 파병으로 전쟁 범죄 집단의 명단에 들어가게 되었다.

특히, 일본은 역사왜곡과 고이즈미 총리의 신사참배 등으로 과거의 반성없이 군사력을 증강 하더니, 유사법안의 가결로 전쟁을 위한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일본 정부는 과거사에 대한 진정한 사죄와 다시는 되풀이 되어서는 아니 될 전쟁의 야심을 버려야 할 것이다.

세계 속에 분단 국가로 남아 있는 한반도는 전쟁의 위기에 가장 첨예한 국가이다. 북한의 핵 실험을 하고 있다는 것이 확인되었고, 여러 차례의 실험을 통하여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북한의 핵무기 보유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인접 국가인 일본이나 중국 등 동북아시아로 하여금 더욱 무력을 증강케하고 마침내는 전쟁의 위기에 달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우리는 어떠한 희생이 따르든 하더라도 전쟁을 막아야 하고, 핵에 의한 피해자가 다시는 지구상에 없도록 해야 한다.

북한의 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대화와 협상을 통한 평화적 해결이 이루어져야 한다. 한반도 및 동북아시아 지역의 안정과 평화를 위해 체결된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 NPT(핵확산 금지 조약), 제네바 합의는 존중되고 준수되어야 한다.

특히 일본을 비롯하여 인접국가들과 KEDO(한반도 에너지 개발 기구) 관련국들에게 미국의 일방적인 처 북한 고립 및 압박 정책에 동참하기 보다는 북한과의 관계 개선과 인도적인 지원 및 교류협력을 지속함으로써 북한의 핵 문제에 대한 평화적인 해결을 기대해 본다.

韓国被爆二世
慶南支部会員 張世龍

2003年3月20日世界反戦示威とフランス、ドイツ、ロシア、中国、中東国家などの反対にも関わらず、米国、イギリス連合軍はイラクに対して攻撃を始めました。このように同時に世界のあちこちの反戦集会在開いて、米国に對した糾弾と無辜なイラク民衆についての攻撃及び非人道てきな爆弾に声討が大變でした。

それにも関わらず韓国国会は国民の意と異なり、イラク戦に派兵同意案を可決処理して平和の道を捨てて戦争の道を選択することになりました。世界は戦争国家群と平和国家群に分かれることになりました。

韓国政府はイラク派兵を施行しながら、国民の平和意志とは無関に戦争国家へ入ることになりました。

イラク戦争はUNの承認節次を無視した明確な侵略行為です。

ブッシュ政権は人類の両親が集まった法廷で審判を受けなければなりません。そして、韓国と日本のおイラク派兵として戦争犯人集團の名單に入ります。

特に、日本の歴史歪曲と小泉首相の神社参拝などとして過去の反省なく軍事力を増強するのに、有事法制の可決は戦争のためのことだと思われまます。日本政府は過去に対して真な謝罪ともう二度とは戦争を起こしてはいけないと思ひます。

世界の中で分断国家として残っている韓半島は戦争の危機にもっとも尖鋭な国家です。

北朝鮮が核実験をしていることが確認されて、何回の実験を通じて核兵器を保有していると見えます。

北韓の核兵器保有は我の国ではなく隣接国家として日本とか中国などの北東アジアとしてしてもっと武力を増強させてついに戦争の危険達することになります。

我々はどんな犠牲が従っても戦争を防止して核の被害者がまたは地球上にはなくすべきです。

北韓の核問題を解決するためには対話と協商を通じて平和的解決をしなければなりません。

韓半島及び北東アジア地域の安定と平和のために採決している韓半島の非核化共同宣言, NPT(核拡散禁止条約), セネバ合意は尊重され、遵守されるべきです。

特に、日本を初め隣接国家らとKEDO(韓半島エネルギー開発機構)関連国家たちに米国の一般的な対北韓孤立及び圧迫政策に同参することより北朝鮮との関係改善と人道的な支援及び交流協力として北朝鮮の核問題について平和的な解決を期待します。

過去の戦争の反省の上に立って 日本政府に戦争させないことが
北東アジア、世界の未来へつながる

長崎県 被爆 2世会
事務局長 崎山昇

私は、岡まさはる記念長崎資料館の理でもあります。お手元に、リーフレットがあるでしょうか。ご覧ください。長崎平和資料館は、史実に基づいて日本の加害の歴史を展示しています。資料館を訪ねる一人一人の市民が加害の真実を知り、一日も早い戦後補償の実現と非戦のために献身することを期待しています。資料館では、近代日本のアジアへの侵略の歴史、朝鮮人強制運行や韓国、朝鮮人被爆者問題、長崎の戦後補償裁判である金順吉裁判や李康寧裁判も展示しています。また、「そして、いま私たちは」というコーナーを新設し、「私たちはいかなる戦争にも反対しています」という資料館としての主張を明確にしています。私は、過去の戦争の反省の上に立って「非戦」、「戦争をしない」ということを決意すること、内外に示すことこそが、北東アジア、ひいては世界の平和を創り出すことに日本が貢献できる道だと考えています。

日本国憲法は、前文で「政府の行為によって再び戦争の惨禍が起らないようにすることを決意し」、9条で、侵略戦争の反省の上に立って、どんな戦争もしないと「戦争放棄」を定めています。しかし、日本は、「有事法案」をもつに至りました。「有事法案」は戦争をするための法律です。日本は、過去の侵略戦争の清算をしないまま憲法を真っ向から否定し、「戦争ができる国」になってしまいました。私は、今後日本政府に戦争をさせないようにしなければならないと考えています。

1994年、アメリカは核開発疑惑を理由に北朝鮮と戦争することを真剣に考えていたといわれています。カーター元大統領が特使として北朝鮮を訪ね、戦争は回避されました。その時、アメリカが戦争を断念した理由の一つが、日本がアメリカからの支援要請に応えられなかったことだといわれています。

アメリカの戦争を支援するための法律の一つが「有事法案」です。

アメリカのブッシュ大統領は、「9.11テロ」以降、国民の憎しみや恐怖を煽りながら、「対テロ戦争」を正当化してきました。イラク、イラン、北朝鮮を「悪の枢軸」と名指し、イラクに対しては大儀なき国際法違反の戦争をしかけました。今も戦争は続いています。日本の小泉首相は、アメリカを一早く支持し、日米同盟重視を鮮明にしました。そして、ブッシュ大統領に世界規模での日米同盟の強化と、北朝鮮へ強硬措置を約束しました。その約束従って、日本はイラクへ自衛隊を派兵し、アメリカとイラクの人々との戦争に参加しようとしています。また、北朝鮮に対しても、アメリカと歩調を合わせながら、圧力を加えています。

日本政府は、未だに過去の侵略戦争を清算していません。北朝鮮とは国交さえありません。日本政府は、「有事法案」を成立させるために歴史を顧みず、今の状況だけを切り取って、拉致問題や核開発疑惑など北朝鮮に対する国民の憎しみや恐怖を煽りました。日本政府は過去の加害の歴史に目を向け、戦後補償を行い、友好信頼関係を築くべきです。そのことが、北東アジアの平和や韓国と北朝鮮の自主的平和的統一に貢献することにつながると確信しています。

私たち日本被爆二世は、再び被爆二世を、被害者を、そして戦争犠牲者をつくらないために、日本政府が再び戦争への道へ向かうことがないように、献身しなければならないと考えています。

과거・전쟁の反省を 하면서 일본 정부에게 전쟁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北東아시아, 세계 평화로 이어지는 것이다.

나가사키 피폭 2세회
사무국장 사키야마 노보루

저는 오카마사하루기념 나가사키 평화 자료관의 이사입니다. 앞에 유인물이 있습니까. 봐 주십시오.

나가사키 평화 자료관은 충실히 기본에 의거해서 일본의 가해 역사를 전시하고 있습니다. 자료관을 방문하는 한사람 한사람의 시민이 가해의 진실을 알고, 하루라도 빨리 전후보상의 실현과 전쟁 반대를 위해서 헌신하는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료관에서는 근대 일본의 아시아 침략의 역사, 조선인 강제 운행과 한국, 조선인 피해자 문제, 나가사키의 전후보상재판인 김순길 재판과 이강녕 재판도 전시하고 있습니다. 또 「그리고, 지금 우리들은」이라는 코너를 신설하고, 「우리들은 어떠한 전쟁도 반대합니다」라는 자료관으로서 주장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저는 과거 전쟁의 반성에서 「전쟁반대」, 「전쟁을 하지 않겠다」라는 결의를 내외에 제시하는 것이야말로 동북아시아, 나아가서는 세계평화를 실현하는 일에 일본이 공헌할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본 헌법은 전문에서 「정부의 행위에 의해 다시 전쟁의 참화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을 결의하고」, 9조에서는 침략전쟁의 반성에서 어떠한 전쟁도 하지 않는다는 「전쟁포기」를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본은 「유사법제」를 만들기에 이르렀습니다. 「유사법제」는 전쟁을 하기 위한 법률입니다. 일본은 과거 침략전쟁의 청산을 하지 않은 상태로 헌법을 정면으로 부정하고 「전쟁을 할 수 있는 나라」가 되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1994년 미국은 핵 개발 의혹을 이유로 북한과 전쟁을 할 것을 신중히 생각했었다고 들었습니다. 카터 전대통령이 특사로서 북조선을 방문하고 전쟁은 회피되었습니다. 그때 미국이 전쟁을 단념한 이유 중 하나가 일본이 미국으로부터의 지원요청에 응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라고 합니다. 미국의 전쟁을 지원하기 위한 법률의 하나가 유사법제입니다.

미국의 부시대통령은 「9.11테러」 이후, 국민의 증오와 공포를 빌미 삼아 「처테러 전쟁」을 정당화해왔습니다. 이라크, 이란, 북한을 「악의 중추」라고 명시하고 이라크에 대해서는 대의없는 국제법위반인 전쟁을 하였습니다. 지금도 전쟁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일본의 고이즈미 수상은 미국을 보다 빨리 지원하고 일미동맹중시를 선명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부시 대통령에게 세계규모로서의 일미동맹 강화와 북조선에의 강건 조치를 약속하고 왔습니다. 그 약속에 따라서 일본은 이라크에 자위대를 파병하고 미국과 이라크 사람들과의 전쟁에 참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 북조선에 대해서도 미국과 보조를 맞추면서 압력을 가하고 있습니다.

일본정부는 아직까지도 과거의 침략전쟁을 청산하고 있지 않습니다. 북조선과는 국교조차 없습니다. 일본정부는 「유사법제」를 성립시키기 위해 역사를 뒤돌아보지 않고 지금의 상황만을 들어서 납치문제와 핵 개발 의혹 등 북조선에 대한 국민의 증오와 공포를 빌미 삼았습니다. 일본정부는 과거의 가해 역사에 눈을 돌리고, 전후보상을 하고 우호신뢰관계를 쌓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한국과 북조선의 자주적 평화적 통일에 공헌하는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일본에는 역사적으로도 그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 일본 피폭 2세는 다시는 피폭 2세를, 피해자를 그리고 전쟁 희생자들을 만들어 내지 않기 위해서 일본 정부가 전쟁의 길로 들어서는 일이 없도록 헌신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공동선언

1945년 8월6일 히로시마에, 8월9일엔 나가사키에 인류 역사상 최초로 핵무기, 원자폭탄이 투하되었다. 강렬한 폭풍과 열선과 무서운 방사선이 사람들을 위협했다. 원폭에 의해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고, 다수의 사람이 다치게 되었다.

원폭에 의한 피폭자는 일본인뿐만이 아니었다. 일본의 아시아 침략 결과, 식민지화한 한국에서 강제연행 등으로 일본에 데리고 왔던 많은 사람들이 원폭 피해를 입었던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한국의 피폭자는 식민지 지배로 고생을 하고 원폭을 당하고, 전쟁 후에는 방치된 피해자들이다. 이와 같은 피폭자를 가진 부모님과 한국의 피폭 2세와 한국인 피폭자의 구원활동을 들고 일어난 일본 피폭 2세와는 서로 신뢰관계를 쌓아오고 있다.

1989년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서, 2000년에는 서울에서 심포지움을 개최하면서 피폭 2세들의 공동된 활동을 시작했다. 그리고 제3회 한국피폭 2세 심포지움을 한국의 부산에서 개최하게 되었다. 이 심포지움에서는 한국인 피폭자와 피폭 2세의 원호를 어떻게 해 나갈 것인가? 그리고 피폭 2세로서 세계 평화 실현을 위해 무엇을 해야만 하는가를 논의해 왔다.

그 결과, 우리들은 한·일 피폭 2세의 연대를 한층 더 강화시켰고, 신뢰를 쌓을 수가 있었다. 이 공동의 활동으로 피폭자, 피폭 2세 문제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확인했다.

원폭의 공포를 아는 우리 한·일 피폭 2세는 다시는 인류가 이와 같은 피해가 없도록 원폭 피해의 체험을 후세에게 전달함과 동시에 세계 평화의 실현을 위해 노력해 갈 것을 선언한다.

오늘 쌓아온 신뢰와 우정을 기반으로 한·일 피폭 2세의 활동을 한층 더 넓혀 나갈 것을 결의하고, 우리들은 한국과 일본의 피폭 2세를 대표해서 새로운 한·일 피폭 2세 교류의 역사가 시작된 것을 선언한다.

2003년 7월 26일

한국 피폭 2세회 회장 이승덕

일본 피폭 2세회 회장 히라노 노부토

共同宣言

1945年8月6日広島へ、8月9日長崎へ人類史上初の核兵器、原子爆弾が投下された。強烈な爆風と熱線と恐ろしい放射線が人々を襲った。原爆によって多くの人が命を失い、多数の人が傷つき倒れました。

原爆による被害者は日本人ばかりではなかった。日本のアジアへの侵略の結果、植民地にさせられた韓国から強制連行などにより、日本に連れて来られていた多くの人々が原爆の被害にあった事実を忘れてはならない。韓国の被爆者は植民地支配に苦しめられ、原爆に会い、戦後は放置させた三重の被害者である。

そのような被爆者を親にもつ韓国の被爆二世と韓国人被爆者の救援活動に立ち上がった日本の被爆二世は、お互いに信頼関係を築きあげてきた。

1989年広島、長崎、2000年ソウルにおいてシンポジウムを開催し、共同の被爆二世の活動を始めるに至った。そして、第3回の韓日被爆二世シンポジウムでは、韓国人被爆者や被爆二世の援護をどう進めていくか。そして、被爆二世として世界の平和の実現のために何をなすべきかを論じた。

その結果、私たちは韓日被爆二世の連帯をいっそう強固なものとし、信頼を築き上げることができた。その共同の活動として被爆者、被爆二世問題の解決のために尽力していくことを確認した。

原爆のおそろしさを知る我々韓日の被爆二世は再び人類がこのような被害に会うことのないよう原爆被爆の体験を後世に伝えるとともに世界の平和の実現のために努力していくことを誓いたい。本日、築きあげた信頼と友情をもとに韓日被爆二世の活動をいっそう広げていくことを決意し、私たちは韓国と日本の被爆二世を代表して新しい韓日被爆二世の交流歴史が始まったことを宣言する。

2003年 7月 26日

日本 被爆 2世の会 会長 平野伸人

韓国 被爆 2世の会 会長 李承德

日本の政府に対する被爆2、3世の
要求と現状

▶ 被爆2世、3世條項(豫算措置の法制化)

- I. 都道府県知事は、申出のあった被爆2世、3世に対して、健康診断を行う。
- II. 原子爆弾の傷害作用に起因痴病として政令で定めるものにかかっている旨の都道府県知事の認定を受けた被爆2世、3世に対して、認定痴病医療の給付、一般痴病医療費の支給、医療手当及び介護手当の支給を行う。(新規)

▶ 原子爆弾被爆者に対する援護に関する
法律案の對する附帶決義

- V. 被爆者とその子及び孫に対する影響についての調査、研究及びその対策について十分配慮市、二世の健康診断については継続して行うとともに、その置かれている立場を理解して一層充実を図るこ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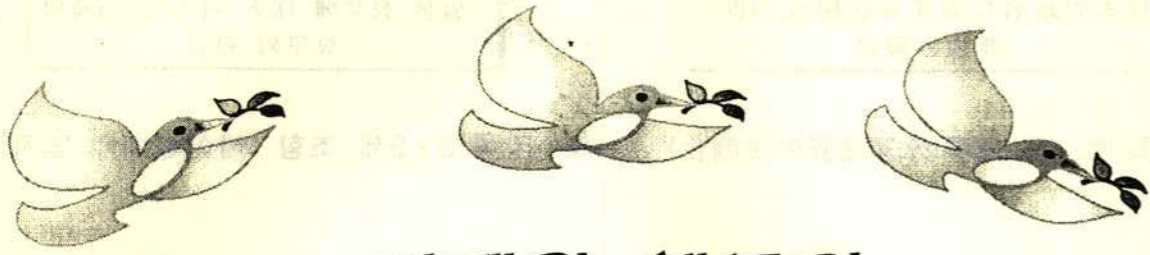
일본 정부에 대한 피폭 2·3세의
요구와 현상

▶ 피폭 2·3세 조항 (예산조치의 법제화)

- I. 都道府県知事は、중세가 있는 피폭 2·3세에 대하여 건강진단을 행한다.
- II. 원자폭탄의 상해 작용에 기인하는 치병으로서 政令으로 정한 것으로, 都道府県知事の 인정을 받은 피폭 2세 3세에 대해서, 인정 치병의료의 급부, 일반 치병의료비의 지원, 의료수당 및 간호수당의 지급을 한다.(新規)

▶ 원자폭탄 피해자에 대한 원호에 관해
서 법률안에 대한 부대결의(附帶決義)

- V. 피폭자와 그의 자제 및 손자에 대한 영향에 대한 조사, 연구 및 그 대책에 대해서 충분히 배려하고 2세의 건강진단을 계속해서 실행할 것과 처해있는 입장을 이해하여 한층 더 충실을 도모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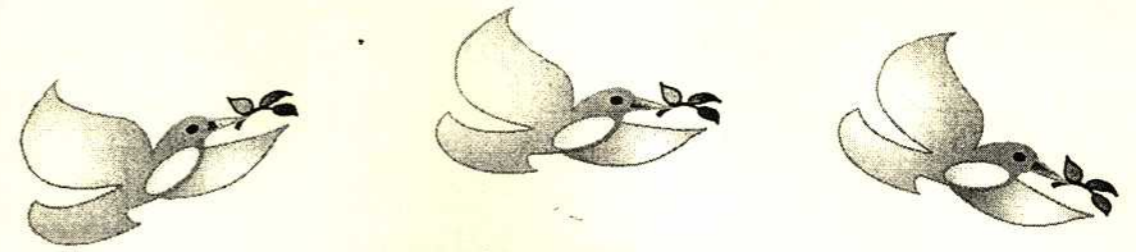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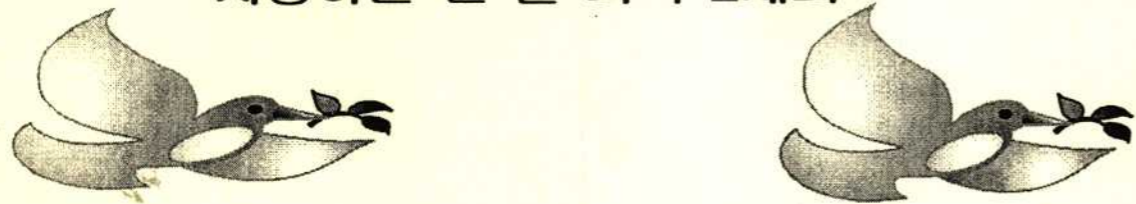
우리들은 전쟁과 핵무기가 없는
『평화로운 세계의 실현』을 바랍니다.

▶ 다시는 핵 피해자를 만들지 말자 ◀

- 우리들은 하루 빨리 핵무기의 폐기를 바랍니다.
- 우리들은 세계인들이 평화로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바랍니다.
- 우리들은 전쟁없는 세계실현을 향해 국제연합의 한층 더 높은 노력을 바랍니다.

세계의 모든 사람들과 손을 잡고 함께 평화로운 세계를
건설할 것을 맹세하면서 서명을 부탁드립니다.

- 핵무기 폐기와 평화로운 세계의 실현을
지향하는 한·일 피폭 2세회 -



私たちは戦争と核兵器がない
『平和な世界の実現』を求めます。

▶ 再びは核の被害を作らないために ◀

- 私たちは、一日も早く核兵器の廃絶を求めます。
- 私たちは、世界中の平和な生活ができるよう求めます。
- 私たちは、戦争のない世界の実現へ向けて、国連の一層の
努力を求めます。

世界中の若者と手をつなぎ共に平和な世界を築くことを誓って、
この署名をお願いします。

- 核兵器の廃絶と平和な世界の実現をめざす
韓・日被爆 2世会 -

